



## 개인의 건강이 은 사회로 퍼져나가길



김 정 교  
간협신보 편집국 기자

소식지 편집자의 원고청탁을 수락하고 꼬박 일주일을 후회했다. 세상에 「새해에 바란다」라니, 제 능력도 모르고, 내가 미치지 등등의. 세상사에 달관한 도인이라면 『새해에는 이러 저러하게 살면 좋지 않겠는고-?』라고 점잖게 한마디하면 될 것이고, 정치에 열받는 사람이라면 『한국정치,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지기 바란다』하고 톤을 조금 올리면 될 것이며, 특히 건축학이나 토목학을 전공했다면 『한국의 다리, 한국의 가스공급, 저렇게 변해야 한다』고 목청을 드높이면 될텐데, 후회막급이다. 그러나 어찌랴, 받은 잔은 마셔야지.

10여년을 원고지 장사로 지내다보니 이런 류의 고민에서 비교적 손쉽게 헤어나는 나름의 노하우를 갖게 됐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 3자를 통한 간접화

법으로 『○○○에 따르면』이다. 이 방법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는 번잡성을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책잡힐 여지가 없다』는데서 자주 응용된다. 그래, 이걸로 시작해 보자.

먼저, 눈뜨고 있는 시간 동안 가장 오래 함께 해야 하는 직장동료에게 『새해에 바라는게 뭐요?』 통명스레 수작을 건네 본다.

『새해 소원이요? 그거야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면 바랄게 없죠. 지난 해엔 식구들 병원출입이 잦았거든요.』

식구? 건강? 상당히 1차적인 개념인데... 일단 사전을 찾아보자.

식구: 한 집안에서 같이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그럼 하숙생도?)

필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새해바람」은  
오로지 건강인 모양이다. 따라서 필자의 새해바람은  
다음과 같다. 온 세상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그리고  
개인의 건강이 온 사회에 퍼져, 나라 전부가  
건강해 지기를…

건강 : 정신적·육체적인 이상의 유무를  
주안으로 본 몸의 상태. 몸에 탈이 없고 튼  
튼함.

동료의 얘기를 정리하는 것은 독자에게  
말기고, 다음 의견수집을 위해 가까운 친  
구에게 전화를 건다. 오랫동안이다. 잘지냈  
냐, 집안은 편하나 등으로 사내답지 못한  
수다를 떨다가 본론을 꺼내자 친구의 목소  
리가 자못 심각해 진다.

『새해소원? 야야, 말도 마라. 더도 덜도  
말고 마누라가 아프지만 앓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애 낳고 조리도 못한 채 직장일에  
매달리더니, 지가 벌어진 돈 몽땅 병원에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두꺼비같은 아들  
낳아주고도 그 혼한 잉어 한마리 얻어먹지  
못했다며 죄없는 나만 들볶고, 야야, 이 건  
사는게 아니다.』

사는게 아니다? 과연 심각할만 하군.  
그렇지만 녀석도 그렇지, 잉어 한마리면  
최소한 떨치가 되지는 않을 것을 쓰쓰. 어  
썩든 여기서도 「건강」얘기가 나오네.

다음은 누구에게 물어볼까, 잠시 생각하  
다가 집으로 다이얼을 돌린다. 요즘들어

부쩍 여우짓이 늘어난 여섯살배기 딸아이  
가 받는다. 질문을 받고 한동안 대답이 없  
는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현명한 답변을  
생각중인 모양이다.

『저는요, 아빠가요, 술도 안먹고 담배도  
안피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믄 아빠가 더  
건강해지잖아요.』

장하다, 내 딸아. 그 수많은 종류의 과자  
들과 현란한 장난감들의 유희를 이겨내고  
「못난」이 아빠의 건강을 생각해 주다니,  
그래, 니가 원하는 거라면 집만 빼고(왜냐  
하면 이 아빠도 아직 집이 없으므로) 모두  
사주마. 어쨌거나 사랑하는 딸아이도 「건  
강」이 최고라는 의견을 주는군.

충분치는 못하지만 필자와 가까운 사람  
들의 「새해 바람」은 오로지 건강인 모양이  
다. 따라서 필자의 새해 바람은 다음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자  
신의 건강에 유의하기를, 그리고 개인의  
건강이 온 사회에 퍼져 나라 전부가 건강  
해 지기를…』 ㉞